구도심엔 노인들만 남고…

광주 동구 노인인구 13.2%…광산구의 2배

도심 재개발 노년층 고려 필요

광주지역 노인 10% 치매 환자

광주시 동구의 노인 인구(65세 이상)가 전체의 13.2%에 달해 고령사회 진입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광산구의 2배를 웃도는 비율로, 광주시 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은 것이다.

동구의 노인 인구 비율이 이처럼 높은 것은 외곽의 택지개발에 따라 도심이 무질서하게 확대되면서 구도심엔 노년층과 빈곤층이 많이 남고, 외곽인 택지지구에는 젊은층과 부유층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각종 재개발이나 도심활성화 사업 추진과정에서 노년층을 고려한 정책 수립 및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6일 광주발전연구원이 발간한 '광주연구-고령사회 도래와 광주시 노인정책'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광주시 동구의 노인인구(1만4천710명)는 구 전체 인구(11만1천164명)의 13.2%로 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아 고령사회 진입이 임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남구 10.0%, 북구 7.9%, 서구 7.7%로 조사됐다. 특히 광산구는 6.5%에 그쳐 동구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구별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사회는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4~20%미만인 경우, 초고령사회는 2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동구와 남구의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것은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상당수가 노후주택이나 미흡한 기반시설 등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여건 때문에 이주하기가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박준필 광주발전연구원 도시교통연구실장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완료된 계림 5-1구역, 운암 1·2단지 등의 기존 주민 재정착 비율은 13%에 불과하다"며 "이런 방식은 특히 경제적으로 빈곤한 노인층들이 갈 곳을 없게 할 가능성이 높다 "고 말했다.

특히 광주지역 치매 환자가 1만명에 육박해 이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 안효자 동신대 교수는 같은 자료집에 실린 '광주 노인의 정신건강 현황과 방향 모색'이라는 논문에서 "지난해말 현재 광주시에는 9천922명의 치매 환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의 약 70%이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고령사회를 앞두고 남구 노대동 노인건강타운 개원, 북구노인건강타운 설립 등 시의 정책적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저소득 빈곤 노인 대책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지난해 말 광주의 노인인구는 11만8천453명으로 전체 시 인구(143만4천625명)의 8.3%를 차지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경(輕) 순찰차 떴다 6일 광주시 동구 장동 전남여고 인근에서 순찰중인 광주동부경찰서 금남지구대 직원들이 지구대와 무전교신을 하고 있다. 지난 1일 광주·전남에 각각 1대씩 도입된 경(輕)순찰차를 통해 경찰은 환경오염을 줄이는 한편 비좁은 도심과 골목 구석구석까지 순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청산가리 막걸리' 4명 사상

순천 황전서 희망근로 할머니들 참변

순천에서 희망근로에 참가한 노인 4명이 청산가리가 든 막걸리를 나눠 마시고 쓰러져 1명이 숨지고 3명은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6일 오전 9시10분께 순천시 황전면 천변에서 막걸리를 나눠 마신 최모(여·56)씨 등 4명이 갑자기 구토를 하며 쓰러진 것을 동료가 발견, 119에 신고했다. 최씨는 병원 이송 중 숨졌으며, 장모(여·74)·정모(여·75)·이모(여·75)씨 등 3명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의식불명 상태다.

희망근로 참여자인 이들은 이날 오전 8시께 천변 일대에서 잡초를 뽑는 등 환경정화활동을 하던 중 막걸리를 마시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집에 있던 막걸리 2병과 가게에서 구입한 3병 등 모두 5병을 근무지로 가져와 집에 있었던 1병을 먼저 동료와 나눠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이 막걸리는 독한 냄새와 함께 진한 청색을 띤 상태였다. 경찰은 "마당에 놓여져 있던 막걸리 2병을 마루에 올려놨는데, 아내가 이 막걸리를 들고 일하러 갔다"는 숨진 최씨 남편의 진술에 따라 막걸리가 집안에 놓인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최씨의 남편은 농사일을 잘 도와줘 평소에도 마을 주민들이 막걸리 등을 이 집에 가져다줬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문제의 막걸리에 대한 성분분석을 의뢰한 결과, 청산가리가 다량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 청산가리로 불리는 시안화칼륨(KCN)은 금·은·동 등 전기도금과 제련, 분석시약 등에 사용되며, 치사량은 0.15g으로 극소량을 섭취해도 사망할 수 있는 강력한 독극물이다.

그러나 주삿바늘 자국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누군가 최씨 부부를 해치려고 막걸리에 고의로 청산가리를 탄 뒤 일부러 갖다 놓았을 것으로 보고 병에 묻은 지문분석과 탐문수사를 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장자연 소속사 前대표 구속

탤런트 고(故) 장자연씨 자살사건을 수사중인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6일 사건의 핵심인물인 소속사 전 대표 김모(40)씨를 폭행, 협박, 횡령, 도주 등 혐의로 구속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이상우 영장전담판사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이날 오후 7시20분께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이에 따라 분당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된다.

/연합뉴스

'원룸촌 발바리' 또 성폭행

광산구 3일만에 또 출현

광주시 광산구 원룸촌에 또다시 '발바리'가 출현했다. 지난 3일에 이어 두번째다.

6일 오전 7시20분께 광주시 광산구 A(여·24)씨의 M원룸에 20~3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침입해 흉기로 위협, 성폭행한 뒤 달아났다.

A씨는 경찰에서 "출근하는 남자친구를 배웅하기 위해 잠시 문을 열어둔 채 나갔다 온 사이 방안에 괴한이 들어와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의 집 현관문과 원룸 건물 출입문을 모두 열어둔 채 외출한 것으로 미뤄 건물 외부에서 이를 지켜본 괴한이 방안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으나, 내부인의 소행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170㎝가량의 키에 모자를 쓴 용의자를 쫓고 있다.

이에앞서 지난 3일 밤 광주시 광산구 Y원룸 B(여·26)씨의 집에 20대 남성이 침입, 창문을 열어놓고 잠을 자던 B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하고 달아나는 등 최근 광주지역 원룸촌에서 성폭행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자신이 판 조경수 수백그루 훔쳐

쌍나팔

○…자신이 판매한 나무 수백 그루를 야간에 중장비를 이용해 뽑아간 50대 조경업자가 경찰에 덜미.

○…광주동부경찰은 6일 도로확장공사 부지 내에 있던 나무를 판매한 뒤 야간에 이를 훔쳐간 최모(50·광주시 동구 소태동)씨를 절도 혐의로 입건.

○…최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동구 월남동 광주~화순 간 도로확장 공사현장 사무실 부지에서 H업체에 1~2년생 백일홍 등 300여그루를 300만원에 팔아치운 뒤 이날 밤 9시께 굴삭기를 동원해 뽑아간 혐의.

○…최씨는 경찰에서 "건설업자에게는 나무가 쓸모가 없을 것 같다는 성급한 판단을 했다"며 선처를 호소.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병어 100상자 돌린 신안군수 동생 영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6일 박우량 신안군수의 동생(52)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신안군 병어축제를 전후해 서울에 있는 향우회원들에게 병어 100상자(시가 600여만원 상당)를 선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발송인 이름이 '신안군'으로 돼 있는 점에 주목해 군수나 군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

박씨는 "내 이름으로 선물을 보내야 했는데 착오가 생겨 신안군 이름으로 발송됐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대성수기자 dss@

前동업자 폭행 4명 검거

광주서부경찰은 6일 전 동업자가 대리운전회사를 개업하면서 고객정보를 빼갔다며 둔기로 집단 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모 대리운전회사 대표 윤모(41·북구 일곡동)·정모(37·동구 지산동)씨 등 2명에 대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했다. 또 공범 유모(33·남구 방림동)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차량절도 수배자 경찰에 차량 돌진 경찰관 3명 부상

차량 절도 혐의 등으로 쫓기던 형제 중 동생이 검거에 나선 경찰을 향해 차량을 타고 돌진, 부상을 입힌 뒤 도주했다.

6일 새벽 1시40께 광양시 광양읍 모 마트 앞 주차장에서 신모(20)씨가 자신의 검은색 옵티마 승용차로 순천경찰서 소속 형사 3명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신씨 형제를 이곳으로 유인해 검거하려던 조모(49) 경사의 오른쪽 다리가 부러지는 등 경찰관 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애인 등 3명을 태우고 달아나던 신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양 경찰 소속 읍내지구대 순찰차 2대까지 들이받은 뒤 순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차량을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신씨가 자신과 함께 수배됐다 먼저 검거된 형(22)이 자신의 소재를 경찰에 알린 것으로 오인, 차량을 몰고 경찰과 형을 향해 돌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현재 신씨 등 탑승자 3명을 전국에 수배하는 한편, 붙잡힌 신씨의 형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